

# 감옥에서 수도원으로

게어하르트 하우프트만 극장은 코르트 마이어링의 신작 《그람시》 초연을 푸치니의 《수녀 안젤리카》와 함께 무대에 올렸다.

마이클 에른스트 지음 [Allgemein Rezensionen](#) | 27.03.2025



《그람시》, 코르트 마이어링 작곡 오페라, 사진: 니콜라이 슈미트

게어하르트 하우프트만 극장은 코르트 마이어링의 신작 《그람시》의 초연을 푸치니의 《수녀 안젤리카》와 결합하여 선보였다.

토요일에 초연되었고, 월요일에 발표되었다. 다니엘 모르켈로트는 내년부터 괴를리츠/치타우의 게어하르트 하우프트만 극장을 떠나 뷔르츠부르크의 마인프랑켄 극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코부르크 출신인 그는 작센을 “눈물 어린 눈으로” 떠나지만, “새로운 임무에는 웃는 눈으로” 기대를 품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방금 괴를리츠 본 극장—소위 ‘작은 젤퍼오퍼’—에서 이룬 초연의 성공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할 이유가 있다. 다소 대담하게 보였던 조합, 즉 코르트 마이어링의 오페라 《그람시》의 세계 초연과 자코모 푸치니의 《수녀 안젤리카》를 결합한 공연은 완벽하게 어우러졌고, 초연을 관람한 관객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모험적인 시도였다.

이탈리아 공산주의자이자 마르크스주의 철학자였던 안토니오 그람시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잊혀진 인물이다. 하지만 그의 《옥중수고》를 펼쳐 보기만 해도 그가 잊혀져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는 생애 마지막 10년의 대부분을 파시스트 정권의 고문 감옥에서 보내며 심각한 병을 앓았고, 겨우 46세에 세상을 떠났다.

그를 오페라의 주인공으로 삼는 일은 한편으로는 설득력 있지만, 동시에 매우 까다롭다. 이 인물을 얼마나 사적으로 다루어야 할지, 또는 정도의 이념적 거리감을 유지해야 그를 뒤늦게 영웅화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사상과 삶을 해치지 않게 될 것인지—이러한 난제들이 뒤따른다. 이러한 과제를 프랑크푸르트 룬트샤우의 오랜 문화칼럼니스트이자 음악계의 깊은 통찰을 지닌 저명한 저술가 한스클라우스 융하인리히는 균형 잡힌 설득력으로 해결해냈다. 그는 주인공에게 인간적으로 접근하면서 그람시의 이상과 무솔리니 정권의 박해를 이야기의 중심에 놓고, 그 주위를 정신적 고립과 삶에 대한 갈망으로 감싼다. 감방 안에서 그람시는 단어를 찾아 고뇌하며, 글을 쓰고, 세상에 외친다. 그리고 의사의 진료를 받는데, 그는 의사로서는 도움을 줘야 하지만, 파시스트로서는 그에게 죽음을 원한다. 짧은 장면들로 구성된 이 오페라는 모스크바에 사는 아내 줄리아에 대한 사랑과 그녀의 여동생 타티아나로부터의 위로를 그린다. 회상 장면에서는 무솔리니, 스탈린 같은 독재자들과의 논쟁, 어머니와 형 젠나로와의 깊은 유대감이 그려진다.

한스 베르너 헨체의 제자였던 코르트 마이어링은 이 모든 기억들을 15개의 간결한 장면으로 압축하였고, 성악과 오케스트라 모두 다채로운 음악적 요구를 부여했으며, 음악적으로는 감정적으로 분열된 심리 초상화를 그려냈다. 이를 노이에 라우지처 필하모니와 오페라 합창단 남성단원이 완벽하게 구현해낸 점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사르테나 출신의 실제 테너 4인조가 참여하여, 불안 리가 설득력 있게 연기한 주인공의 생애적 출신을 인상적으로 부각시킨 점이다. 한스 페터 슈투루페는 의사, 무솔리니, 스탈린 역할을 맡아 약간 절제된 목소리로, 레닌 수염과 두 독재자의 손가면을 쓰고 무대에 올랐다. 요한나 브라우트는 거리를 둔 채 아득한 느낌의 아내로, 리사 오르투버는 감정적으로 훨씬 더 적극적인 처형으로 등장했다. 이보네 라이히는 병약한 어머니를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 영화의 분위기처럼 연기했다. 야론 장은 사랑하는 형 젠나로와 경고하는 동지 툴리아티를 동시에 연기하며 두 얼굴을 보여주었다.



《수녀 안젤리카》, 자코모 푸치니 작곡 오페라, 사진: 니콜라이 슈미트

이토록 강한 고백의 무대, 에미네 귀너가 설계한 정면 액자식 무대 위에서, 그람시는 대부분 감방 침대에 앉아 손짓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 그런데 2부에서는 푸치니의 《세 개의 단막오페라(Il trittico)》 중 수녀원 장면들로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었을까? “괜찮았다”는 식의 표현으로는 너무 부족하다. 괴를리츠에서 선보인 이 오랜 기다림 끝에 초연은, 그저 찬사를 받을 만한 사건이었다. (프랑크푸르트 룬트샤우는 이 역사적인 초연에 단 한 줄의 비평도 남기지 않았지만, 융하인리히의 미망인과 자녀들, 손자들까지 모두 네이셰 강변까지 찾아온 공연이었다.) 이 초연은 1918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처음 상연된 《수녀 안젤리카》와 놀라우리만치 조화롭게 어우러졌다.

푸치니의 세 단막 중 중간 부분이 이탈리아어 원어로 불렀으며, 무대는 꽃과 햇살이 가득한 수녀원 안뜰로 설정되었다. 상류층 가문 출신의 주인공 안젤리카는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아이를 출산함으로써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격리된다. 그녀는 독재적인 대수녀가 지배하는 폐쇄적 수녀원의 다른 수녀들 사이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간다. 안젤리카는 약초 재배에 몰두하며 침묵 속에 고립된 채 아이에 대한 그리움에 몸부림친다.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그녀로부터 빼앗겼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고모—감정 없는 뚱뚱한 귀부인—가 나타나 아이는 이미 죽었다고 말한다. 이에 절망한 안젤리카는 상속을 포기하고 자살을 택한다. 교회 교리에 따르면 자살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이 역할을 맡은 파트리치아 벤쉬는 상처 입었지만 품위 있는 사랑을 지닌 어머니를 연기하며 관객의 깊은 연민과 감탄을 이끌어냈다. 이 오페라는 전적으로 여성들만이 등장하는 작품이며, 솔리스트와 합창단 모두가 수녀라는 배경 속에서 빛나는 음악적 집중력을 발휘했다. 괴를리츠 극장의 음악감독 로만 브로글리자히는 초연의 밤을 극적으로 잘 구성했고, 다채로운 음색을 섬세하게 꽃피워냈으며, 새로운 오페라와 푸치니의 수녀 비극을 감성적으로 절묘하게 엮어냈다. 연출가 베른하르트 F. 로게스는 이중적인 도피—그람시는 강제로 글을 통해 진리를 탐색하고, 수녀 안젤리카는 믿음 속에서 구원을 기도한다—라는 두 인물의 실패한 삶을, 교리적 잔혹성에서 벗어나는 해방의 장면으로 설득력 있게 연출하였다.

다음 공연 일정은 괴를리츠 극장에서 3월 30일, 4월 4일, 4월 30일, 5월 17일이다.



마이클 에른스트 / 저자 소개

마이클 에른스트는 사적으로, 방송에서, 그리고 인쇄 매체를 통해 문학, 음악, 연극을 다루고 있다. 그는 여러 오페라 극장과 음악 축제에서 활동해 왔으며, 2009년부터 『Musik in Dresden』의 필자로 활동 중이다.